



김동진 편집장



고병원성시 3월까지 방역조치 유지

긴장의 끈 놓지 말아야

정부는 '23.11일 가금농장에서 시가 발생한 이후 1달 이상 추가 발생이 없다가 2월 22일 3건의 시발생이 추가되면서 3월말까지 심각단계 및

방역조치를 유지키로 하였다.

지난해 10월 17일 시가 처음 발생된 이후 금년 2월 23일까지 총 66건의 농장 발생이 있었으며 587만천수가 살처분 되었다. 그 재정소요액만 해도 296억원이 될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과거 봄철에도 간헐적 발생사례가 발생한 경험에 비추어 철새 복상에 따른 이동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취약축종을 중심으로 방역관리가 지속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3월 말까지 심각 단계 및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유지하고, 방역조치를 연장키로 하였다.

2003년 처음 시가 국내에 상륙한 이후 10차례에 걸쳐 1,277건의 농장 발생이 있었다. 과거에 비해 소비위축과 가격하락 현상은 거의 볼 수 없지만 정부의 과도한 살처분 정책과 농가 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다행히 최근에는 살처분 범위가 닭에서는 발생지역 500m 이내로 책정되다 보니 피해가 적게 나타났으며, 살처분 보상비도 현실에 맞게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년에는 무조건적인 살처분 보다 사전예찰에 방점을 두면서 피해를 최소화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계란수입 등 성급한 계란수급정책은 비난을 받을만 하다. 지난해 병아리 입식수가 늘어나면서 계란생산 잠재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스페인에서 비싼가격에 계란을 수입해 싼 가격에 국내에 판매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한 이러한 해프닝은 앞으로는 더 이상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살처분 보상비의 경우 시 확산 방지에 협조하기 위해 예방적으로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와 발생농가(최초 발생 전월 시세 적용)의 지급기준을 차등화하고, 방역상 중요 기준을 위반 할 경우 높은 감액 비율을 적용, 방역 우수농가에 대해선 감액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기재부와 협의, 법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3월까지 AI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3한국국제축산박람회 9월 개최

세계 축산박람회 열기 뜨겁다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이 점점 해외로 뻗으면서 국내에 관심을 갖는 해외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다. 오는 9월 6일~8일(3일간) 대구 엑스코

(EXCO)에서 개최되는 2023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국내유일의 단일 축산박람회로 해외에도 널리 알려진 박람회중의 하나이다. 금년 본회가 주관하여 진행하게 되는 이번 박람회는 1월부터 부스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홍보 및 부스유치에 들어갔다. 그동안 선뎠지 못한 기술력들이 이 박람회에 집중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대형 사료회사들이 신청을 마친 상태이며, 위치가 좋은 프리미엄 부스도 거의 마감이 되어가는 형국이다. 유치목표 700부스중 이미 40%의 부스 참가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어 5월까지 접수를 받지만 이전에 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회는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3월 태국에서 개최되는 VIV Asia 박람회 홍보유치를 시작으로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동안 코로나-19가 3년간 하늘길을 막아버리면서 전 세계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들이 줄줄이 취소되는 등 정보와 기술의 교류가 한 동안 단절되어 왔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박람회 개최를 강행하기도 하였으나 전세계적인 유행병이 창궐하는 가운데 행사는 축소 내지 부실하게 개최될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 유명 박람회로는 미국 아틀란타 양계박람회를 비롯 태국 VIV Asia, 독일 하노버 박람회 등을 꼽을 수 있다. 미국 아틀란타 박람회는 하루 종일 참관해도 전 부스를 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매우 큰 박람회로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독일 하노버 박람회 역시 역사를 자랑하는 국제 박람회로 손색이 없다. 이 곳에는 우리나라도 한국관을 설치하여 홍보할 정도로 국내 기술들을 외국에 알리는 장소가 되고 있다. 금년부터 하늘길이 열리면서 외국으로 해외 기술을 보러 떠나는 축산인들도 부쩍 늘어났다.

2023한국국제축산박람회는 외국 업체들이 대거 국내 전시회에 참여하는 국제 박람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국내기술력을 외국에 알리는 좋은 기획의 장이 될 것이다. 양계인 및 축산인, 관련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있기를 바란다. **양계**